[UCI]I804:24011-200000233249

2006 年 2 月
碩士學位論文

칠을 응용한 현대가구디자인 개발 연구

- 소반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朝鮮大學校 大學院

産業工藝學科

서 인 영

칠을 응용한 현대가구디자인 개발 연구

- 소반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Modernization Furniture Design on Lacquer-Varnishing Technique

- Focusing on formative of small dining table -

2006 年 2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産業工藝學科

서 인 영

칠을 응용한 현대가구디자인 개발 연구

- 소반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指導敎授 김 정 필

이 論文을 美術學碩士 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 年 10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産業工藝學科

서 인 영

서인영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조　규　춘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김　정　필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서　경　석 印

2005 年　11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제 2 장. 본 론 ····· 3

제1절. 칠의 일반적 고찰 ····· 4
1. 칠의 개념 및 특성 ····· 5
2. 칠의 도장 공정 ····· 8

제2절. 소반의 일반적 고찰 ····· 10
1. 한국가구의 일반적 고찰 ····· 10
2. 소반의 개념 및 특성 ····· 11
3. 소반의 분류 ····· 14
4. 소반의 일반적 구조 및 제작기법 ····· 33

제3절. 현대가구의 고찰 ····· 23
1. 가구의 정의 및 기능 ····· 23
가. 가구의 정의 ····· 23
나. 가구의 기능 ····· 23
2. 테이블의 일반적 고찰 ····· 24
가. 테이블의 정의 ····· 24
나. 테이블의 역사 ····· 25
다. 테이블의 발달과정 ····· 26
라. 테이블의 종류 ····· 32
3. 소파사이드 테이블 ····· 33
가. 소파사이드 테이블 기능 ····· 33
나. 소파사이드 테이블 특성 ····· 34

다. 소파사이드 테이블 분류 및 경향 · 37
라. 국내 소파사이드 테이블의 현황 · 40

제4절. 작품 제작 및 해설 · 42
1. 디자인방향 · 42
2. 작품설명 및 제작과정 · 43

제 3 장. 결 론 · 56

사 진 목 차

<圖 1> 가구의 크기와 인체비례도 · · · · · 11
<圖 2> 고구려 고분벽화 · · · · · 12
<圖 3> 구구려 고분벽화 사각반 · · · · · 12
<圖 4> 중국 명시대 탁 · · · · · 13
<圖 5> 관경변상도 · · · · · 13
<圖 6> 관경변상도 확대도 · · · · · 13
<圖 7> 19세기 풍속도 · · · · · 14
<圖 8> 호족형 · · · · · 15
<圖 9> 구족형 · · · · · 15
<圖 10> 마족형 · · · · · 15
<圖 11> 죽절형 · · · · · 15
<圖 12> 호족형 다리의 종류 · · · · · 16
<圖 13> 호족원반 · · · · · 17
<圖 14> 주칠호족원반 · · · · · 17
<圖 15> 호족화형반 · · · · · 17
<圖 16> 호족사각반 · · · · · 17
<圖 17> 호족육각반 · · · · · 17
<圖 18> 호족팔각반 · · · · · 17
<圖 19> 호족십이각반 · · · · · 17
<圖 20> 호족십이각반 · · · · · 17
<圖 21> 나전흑칠포도문호족십이각반 · · · · · 18
<圖 22> 마족 통영반 · · · · · 18
<圖 23> 마족 통영반 다리모습 · · · · · 18
<圖 24> 나전구족원반 · · · · · 19
<圖 25> 구족원반 · · · · · 19
<圖 26> 나주죽절반 · · · · · 19
<圖 27> 중국죽절형반 · · · · · 19
<圖 28> 단각반 · · · · · 20

<圖 29> 일주반 ···································· 20
<圖 30> 나주반 부분 명칭도 ···························· 22
<圖 31> 상판, 다리, 운각의 결속 ························ 22
<圖 32> 다리와 운각의 결속 ···························· 22
<圖 33> 다리와 족대의 결속 ···························· 22
<圖 34> 고대 테이블 양식 ······························ 30
<圖 35> 중세 테이블 양식 ······························ 30
<圖 36> 르네상스 테이블 양식 ·························· 30
<圖 37> 바로크 테이블 양식 ···························· 30
<圖 38> 로코코 테이블 양식 ···························· 31
<圖 39> 신고전주의 테이블 양식 ························ 31
<圖 40> 미술공예운동 테이블 양식 ······················ 31
<圖 41> 아르누보 테이블 양식 ·························· 31
<圖 42> 데스틸 테이블 양식 ···························· 31
<圖 43> 바우하우스 테이블 양식 ························ 31
<圖 44> 스칸디나비아 테이블 양식 ······················ 31
<圖 45> 2차세계대전 이후 테이블 양식 ···················· 31
<圖 46> 주거공간의 전형적인 활동영역 ···················· 35
<圖 47> 30평형 아파트 도면 ···························· 36
<圖 48> 40평형 아파트 도면 ···························· 36
<圖 49> 휴식용 의자(소파, 안락의자)에 앉았을 때 규격 ········ 36
<圖 50> 상판에 따른 예 ································ 37
<圖 51> 다리에 따른 예 ································ 38
<圖 52> 구조에 따른 예 ································ 39
<圖 53> 소재에 따른 예 ································ 39

표 목 차

<표 1> 각 나라별 옻의 구성성분 · 11
<표 2> 지역별 소반 다리 특징 · 21
<표 3> 현재 시중에 생산되어지고 있는 테이블의 종류와 크기, 형태파악 · · · · · 40

작 품 목 차

<작품 1>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1 ····· 45
<작품 2>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2 ····· 46
<작품 3>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3 ····· 49
<작품 4>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4 ····· 52
<작품 5>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5 ····· 55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Modernization Furniture Design on Lacquer-Varnishing Technique

- Focusing on formative of small dining table -

Seo In-young
Advisor : Prof. Kim Jung-pill
Department of Industrial craf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men lived life with hope for new millenium and the flow of globalization. A variety of culture and genre such as the fashion, the music, the architecture and the art, etc were integrated to experience gradual integration, for instance, the West's Orientalism and the East's Occidentalism, to create new culture.

In the past, the Chinese culture had great influence upon Korea owing to geographical features to let the Korean people not to accept the Chinese culture as it was but to reinterpret it by themselves and develop it in accordance with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s. And, the Korean people produced the furniture having simple and plain beauty owing to the natural features, the culture and the racial characteristics.

With such a historical background, modern furniture at local market was developed in modern style with the inflow of the Occidental material, design and new technology, etc. In the 1990's, however, the material and technology requiring less production costs were introduced carelessly and conspicuous style was introduced from foreign countries to lure wide range of new customers and imitate it without hesitation to make environmental change. As a result,

consumers hated built-in chest of drawers and home office furniture that laid emphasis on function only without sensitivity, so that the humanity and racial characteristics were lost to let men recognize traditional culture slowly together with stability of living life.

This study cognized the needs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have connection with the aesthetics of the traditional furniture as well as modern society circumstance to make cultural furniture design producing formative beauty as well as traditional beauty. And, the study made use of formative shape of legs of Soban (small dinner table) of the traditional furniture to apply lacquer and to develop sofa side table for modern residing life.

The study examined simple and unsophisticated formation of soft lines of Soban of the traditional furniture to interpret and create again tradition with modern sense to investigate formative designs and to make change of forms and use being suitable to current residing space.

The study put enough space to accommodate various kinds of articles at top based on leg types of Soban such as Kujokban, Hojokban and Najuban, etc and to make use of lacquer and elevate durability and moisture-proof and to put patterns of peony and chrysanthemum on doors and top plate of the furniture and produce visual effects.

The study removed unnecessary decoration and material that were often used in the past with manual arts and crafts, and made use of lacquer based on naturalism to design sofa side table that could meet modern people's life and culture by focusing on formation of Soban leg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한국의 전통 목칠가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현대 감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조형적 아름다움과 내츄럴리즘에 의한 자연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가구 산업은 가구시장이 위축되고 전반적인 가구 매출이 감소되었으며 획일화 된 디자인으로 감성이 배제되고 기능성만을 중요시 하는 붙박이장이나 홈 오피스 가구 등의 제품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식상해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가구의 역할은 단순한 기능에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 가구는 벽이라는 공간에 입체감 있는 구성을 표현해주어 벽면을 장식해 주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되고 또한 여러 다른 가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실내공간을 구성하여 미의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에 맞는 가구들이 제작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자연적인 것에 바탕을 둔 한국 전통가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살린 가구들이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가구 중, 선과 선으로 이루어진 면이 부드러운 소반을 우리가 대할 때 따뜻한 모정이 배어나오는 듯 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따사로운 인정까지도 교류되는 소반의 선은 과거 우리 선조들의 사상, 기호, 습성을 표출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순박하고 아름다우며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소반의 조형적, 구조적 특징을 응용하고, 소비자에게 감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칠을 이용하여 기능뿐만 아니라 공간장식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가구를 연구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유구한 역사가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가구를 바탕으로 한 가구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먼저 현재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특성과 개념을 정립한 후 소반의 담백하고 순박한 조형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대로의 답습이 아닌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과 전통의 재창조라는 과정을 통해 조형적인 디자인 특성을 규명하고 현재의 주거공간에 적합하도록 형태와 용도를 변형하여 디자인하며 이를 토대로 시작품을 제작한다.

연구방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등과 선행연구논문,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을 토대로 소반의 형태적 조형성과 현대가구의 조형성 등을 조사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형태나 용도를 변화시켜 현재 생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구를 제시하여 국내가구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반의 연구범위는 조선시대로 국한하여 연구한다. 이는 삼국시대와 신라시대의 목가구는 현존하는 것이 거의 없고 고려시대의 유물은 몇 점의 나전칠기가 전부이며 고려시대의 목가구에 대한 문헌자료는 구체적 서술이 아닌 단편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국 및 신라, 고려의 목가구를 제외하고 조선시대의 소반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시작품의 연구범위는 현대 주거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파 사이드 테이블로 한정하고 형태로는 조선시대 소반의 여러 가지 중에서 나주반과 구족반, 호족반에 형태를 기본개념으로 하며,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추어 다양한 색상과 형태를 도입시켜 디자인하고자 한다.

제 2 장. 본 론

21세기가 되면서 인간은 다음 세기를 위한 희망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패션, 음악, 건축, 예술 등의 다양한 문화 간, 장르 간의 통합뿐 아니라 서양의 동양주의, 동양의 서양주의 등 점차 통합현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리적 영향으로 중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스스로 재해석하여 우리나라의 민족성에 맞게 변모된 형태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풍토, 문화, 민족성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만의 간소하고 담백한 여백의 미를 살린 가구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한 채 현대 국내 시장의 가구는 서양의 재료와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유입으로 현대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작비가 덜 드는 재료와 기술을 마구 대치하고 또한 폭 넓은 신흥고객을 현혹하기 위해서 외래의 이채로운 양식을 따다가 서슴없이 모방하여 환경적 변화를 갖게 되면서 획일화되고 감성이 배제된 가구들이 제작되면서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고 다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활의 안정과 함께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전통가구에서 미학과 현대 사회적인 여건과의 연관성으로 전통가구에서 보여 지는 우리 고유의 조형미와 자연과의 과정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는 정신을 지닌 우수한 가구 디자인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제 1 절. 칠의 일반적 고찰

.

한국의 목칠공예는 상당히 이채롭게 발달하였다. 그 중 고대 한국 칠 공예품의 뚜렷한 예로는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목심칠면(木心漆面), 경주 황남동 고분에서 출토된 목심(木心)과 협저(夾紵)로 된 채화칠이배(彩畵漆耳杯),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도칠칼집[塗漆劒鞘]등 일련의 칠 공예품은 모두 삼국시대 칠공예의 양상을 전해주는 유물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칠 공예품은 현재 분명한 예는 없으나 <삼국사기>에 칠전(漆典)이라는 관청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영의 칠공품 제작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개를 장식하는 나전(螺塡)이 융성한 시대이며 이는 고려의 특산품이 되었다.

고려나전 칠기의 장식기법은 얇은 자개를 사용하여 무늬를 시문하고 이와 함께 장식되는 당초문이나 경계선 등은 동선(銅線)을 꼬아 나전과 함께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고려나전의 문양은 국당초의 나전문양과 청자상감문양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주색(朱色)과 황색(黃色)의 복채(伏彩)를 한 대모(玳瑁)을 박아서 장식하는 대모복채법(복채법 : 채색 기법 중 화면의 앞에서 칠하지 않고 뒷면에서 반복해서 칠해 줌으로써 자연스러운 색감을 내는 기법을 말한다.)과 뿔을 사용한 화각장기법(華角匠技法 : 얇게 깍은 소뿔위에 그림과 색을 칠하는 기술)은 한국공예의 독자적인 칠공예이다. 그리고 고려 문종(文宗 재위 1046-1083)때 고려가 요(遼)에 나전칠기를 예물로 보냈다는 내용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기록되어있다. 이렇듯 11세기 외국에 나전칠기를 예물로 보낼 만큼 뛰어난 작품을 생산하였으며 11~12세기 무렵의 고려나전기술은 그 절정기였다. 그러나 자기(磁器)나 유기(鍮器) 등 여러 재료의 발달이 생활용품으로서 칠기의 영역을 대신함으로써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는 동안 칠을 사용하는 기물들이 조금씩 쇠퇴하였을 뿐 만 아니라 조선조에서 옻칠 즙의 생산을 관수품이나 군수품의 도장재료로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제정되어 공예 재료로서 칠제품이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칠이 민간에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왕권의 통치가 약해지면서 부터인데, 이때부터 가구는 물론이고 제기(祭器)와 칠선

(漆扇), 함지(函紙) 등까지 골고루 사용되었다.

1. 칠의 종류 및 특성

옻나무는 중앙아시아 고원지대가 원산지이며, 동양에 분포되어 있는 특산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4000여 년 전부터 이를 재배해왔다. 옻나무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생장이 가능하나 양질의 옻액을 얻기 위해서는 옻나무의 생장 조건인 기후, 지형, 토질 등이 알맞아야 한다. 옻나무 수액 채취는 6년생 이후의 것에서부터 채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8~10년생에서 채취한 것이 가장 양질이다. 옻칠을 옻나무에서 채취하는 시기는 6월 초순부터 10월 말까지로 입목 상태에서 채취한다.

삼복 이전에 채취되는 옻칠을 초칠이라고 하며, 삼복중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시기에 채취되는 옻칠을 성칠 또는 성물이라고 한다. 그 이후에 채취되는 것을 말칠이라 하며 또한 가지내기칠(지칠)이라고 한다. 지칠을 내고 나서 화칠(火漆)내기까지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성행되어 왔다.[1)]

옻의 질은 한국의 것이 가장 좋은 편이며, 특히 평안북도 태천이 유명했었다.<표1> 옻칠은 천연도료로 광택이 아름다우며 내구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좋다.

산지명	등급	옻산	고무질	함질소물질	수분
한국산	상급	83.41	3.82	1.58	11.18
	중급	72.53	7.87	3.47	16.16
	하급	66.66	4.59	1.21	25.55
일본산	상급	71.64	5.40	1.75	21.21
	중급	64.93	6.31	1.58	27.18
	하급	59.78	7.35	2.03	30.84
중국산	상급	62.06	8.25	2.13	27.56
	중급	59.04	8.18	2.41	32.37
	하급	50.18	9.25	2.41	38.16

<표1> 각나라별 옻의 구성성분(%)[2)]

1) 정복상, 이성계 「목칠가구조형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1999, p89

가. 생칠(생옻)

원료 옻액의 이물질을 제거한 것으로 1급은 최고의 양질 원료를 말하며, 주성분(%)은 칠산(60~80), 고무질(10내외), 합질소(2) 및 수분(10~20)으로 되어 있으며, 칠산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양질의 칠이 된다.

칠의 건조시간은 기온, 공기 중의 습도에 따라 좌우되며 적당한 건조 조건의 온도는 섭씨 25~30도, 습도는 75~85% 이다.

생칠은 주로 고급칠기의 하지 광택을 내는 도장에 사용되며, 목재의 부식방지, 분무도장, 금속제의 녹방지 접착용으로 사용한다.[3)]

나. 정제칠

생칠의 용도에 따라 가공한 칠을 말하는데 회전기로 칠을 고루 섞어 40℃의 열을 천천히 가해 수분을 여과해 없애는 방법으로 정제법에 따라 광택을 나게 하고 투명도의 증진 및 건조시간 조절 용도에 적합토록 한 것이다.

(1)고투명옻

투명도가 가장 높으며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천연수지 등황(藤黃), 자황(雌黃 : 유황과 비소의 화합물, 천연산은 누른빛의 결정체이며 채료용 또는 약용으로 쓰이는데 칠의 황색 착색제이다.)을 혼합하여 적당히 가열해 정제한 연마 광택용 정제도료이다. 이 칠은 주로 고광택 및 투명도장, 시회 등에 사용된다.

(2)투명 납색옻

투명상태가 양호한 생옻으로 정제된 칠이다. 각종 안료, 염료를 혼합하여 채색이나. 나무무늬를 나타내는데 쓰이며, 광택을 나타내는 연마용 정제옻이다.

---

2) 권상오 「칠공예 천연칠의 매력과 기법」 조형사, 1997, p48

3) 정복상, 이성계 「목칠가구조형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1999, p91

(3)투명 광택옻

주로 상칠용으로 사용되며, 제품을 완성하는 투명 옻의 마무리 도장 및 필요한 보조제를 적당히 첨가한 각종 유색옻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 밖에도 흑색의 상칠에 사용되는 검정 광택 옻과 투명하고 무광 도장에 사용되는 투명 무광옻이 있다.[4)]

다. 색칠 (채칠 彩漆)

투명칠에 안료를 섞어 만들며, 주로 칠화를 그리는데 사용된다.
백색은 산화티타늄(Titanium Oxide)과 염기성 염화창연, 적색은 유화수은, 청색계통은 쪽(청), 황색은 석황 또는 자황(雌黃), 녹색은 산화크롬(Chromium Oxide), 갈색은 산화제이철이 안료가 된다.

라. 캐슈칠(Cashew)칠

캐슈칠은 옻나무과에 늘푸른작은키나무(Anacardiun Occidntale)에 열리는 캐슈 너트(Cashew nut)에서 유상물을 빼내어 포르말린(Formalin)과 결합시켜 만들며, 북동 브라질과 서인도 제도를 원산지로 하는 열대성 칠료식물이다. 캐슈는 현재 아프리카 및 인도의 서해안이 주산지이며 주로 열대지방에서 재배된다. 캐슈칠의 주성분인 아나칼드산(Anacgrd酸) 카돌(Cardol)은 옻칠의 주성분인 칠산(Urushiol)과 그 특성이 비슷해서 도막의 외관, 성능, 탄력, 밀착성이 뛰어나고 옻이 오르지 않는 장점이 있다. 캐슈칠의 지속건조시간(도막두께 0.03㎜)은 보통 20℃이하에서는 8시간, 20~30℃에서는 2~3시간이 걸리며 30℃이상에서는 1시간이 걸린다. 만약 칠을 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광택의 변색, 노화 상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부착력이 우수하며, 내습성, 내수성, 내산성, 내알카리성, 절연선 등이 다른 도료와 거의 흡사하며, 탄성도

4) 상게서 p92

우수하다, 그리고 색채도 다양하며 좋은 옻칠대용이기도 하나 특유의 냄새를 가지며, 그 냄새의 역겨움이 문제이다.[5)]

마. 포리사이트

포리사이트는 옻칠에 가장 가까운 합성도료로서 붓칠이나 스프레이 사용이 가능하며, 냄새가 적고 자극성 및 독성이 없으므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내수 내약품성이 강해 퇴화하지 않고 균열, 벗겨짐이 없으며 옻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건조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나 건조장을 밀폐해서는 안 되며 적당한 통풍을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용제의 선택이 중요한데 이는 포리사이트가 합성수지도료이기는 하여도 자연 건조되는 도료이기 때문이다. 용제는 건조속도와 도막의 생성에 많은 영향을 주며 포리사이트 신나가 최적이나 테레빈유도 적당하다. 포리사이트는 밀착성이 좋고 탄력성이 있는 도막을 형성하므로 충격에도 강하다. 작업이 다른 도료에 비해 편리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옻칠과 병용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장재료이다.

2. 칠의 도장 공정

(1) 소지(素地)다듬기 - 디자인이 결정되고 난 후 설계에 의해 나무로 백골을 제작하고 소지를 사포질하여 매끄럽게 하는 과정으로 소지가 나무로 제작된 경우에는 접합부위와 손상부위를 다듬는다. 소지에 100~200번의 사포로 갈고, 400~600번으로 마감한다.

(2) 곡수(穀數)메우기 - 백골의 홈이나 틈을 곡수로 메웠다. 곡수는 백골과 동일한 톱밥에 생칠과 쌀풀을 반죽하여 만든다. 홈을 메운 후 건조시켜 사포로 면을 다듬는다.

(3) 생칠 메기기 : 생칠을 용제(溶劑)와 묽게 배합하여 백골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전체를 칠하여 칠장에 넣어 건조시킨다. 백골에 생칠을 하는 것은 수분흡수를 방지

5) 권상오 「칠공예 천연칠의 매력과 기법」 조형사, 1997, p229

하고 다음 칠의 과정에서 접착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4) 베바르기 - 백골 전체에 호칠(糊漆)로 베를 바르고 건조시킨다. 호칠은 생칠과 찹쌀풀을 1:1의 비율로 섞어서 반죽한 것이다. 방법은 바탕에 나무 주걱으로 호칠을 고루 펴 바른 후 그 위에 베를 놓은 다음 평평하게 바른 후 다시 베 위에 호칠을 고루 바른다.

(5) 1차 골회바르기 - 골회를 베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로 세로 고르게 펴 바른 후 칠장에 건조시킨다. 골회는 토분을 물과 반죽하여 생칠과 혼합한 것을 말하며 비율은 토분과 생칠이 1:1이 되게 한다. 그 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약 20시간 정도 건조시킨다.

(6) 2차 골회바르기 - 연마용 숫돌로 1차골회면을 가볍게 갈아 면을 맞춘 다음 다시 골회를 펴 바른다. 눈매가 완전히 가려지도록 힘을 주어 얇게 바른다.

(7) 면 고르기 - 2차 골회면이 완전히 건조되면 숫돌 물갈기를 하여 면을 고르게 갈아 맞춘다. 수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8) 초칠(初漆)하기 - 칠을 묽게 하여 엷게 바른 후 칠 건조장에 넣어 건조시킨다.

(9) 숯갈기 - 연마용 숯이나 400~600번의 사포를 이용해 물갈기를 하여 칠면을 고르게 한다.

(10) 중칠(中漆)하기 - 칠을 바른 후 칠건조장에 넣어 건조시킨다.

(11) 숯갈기 - 연마용 숯이나 600~800번의 사포를 이용해 물갈기를 하여 칠면을 고르게 한다.

(12) 상칠(上漆)하기 - 칠을 여과지 3~6장을 포개어 3회에 걸쳐 걸른 다름 상칠용 귀얄로 바른 후 먼지를 걷어내고 칠 건조장에 넣어 충분히 건조시킨다

(13) 숯갈기 - 마감용 숯이나 1000~1500번의 사포를 이용해 물갈기를 하여 칠면을 고르게 한다.

(14) 광내기 - 미세한 토분에 종자유(콩기름)를 혼합하여 탈지면 혹은 모포에 묻혀 칠면을 고르게 문질러 광을 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콤파운드를 솜에 적당량 묻혀 고르게 문질러서 칠면을 매끄럽게 다진 후 광약을 이용해서 광을 낸다.

제 2 절. 소반의 일반적 고찰

1. 한국가구의 일반적 고찰

한국주거의 방바닥은 온돌이라는 세계의 어디에도 없는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방바닥 밑에 골을 내고 구들장(방고래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을 덮은 뒤 진흙을 발라 그 위에 기름종이를 붙였으며 방 밖에는 때는 불이 골을 통해 방을 덥게 한다. 겨울에는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지만, 여름에는 불을 때지 않고 냉돌의 시원함을 즐긴다.

이런 좌식생활에서는 의자가 없고 모든 상의 종류는 앉아서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 점은 중국이 침대와 의자 생활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고 한국과 같은 좌식생활을 하는 일본의 경우 다다미(일본식 주택에서 짚으로 만든 판에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돗자리를 붙인 방바닥에 까는 재료)생활로 방바닥이 딱딱하고 판판하지 못해 실내용 장롱이나 탁· 상류가 한국만큼 발달하지 못했다. 어느 모로나 온돌구조의 방은 가구의 다양한 발달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한국 가구는 곧 생활방식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기준이 규격화 된 것이다. 평좌식 가구로서의 단층장(單層欌)· 반닫이· 문갑(文匣)· 책상(冊床)· 소반(小盤) 등은 한국인의 앉은키인 750㎜가 합리적으로 감안된 규격이다. 한국인의 평균 신장은 1640㎜로 주택의 창호가 방바닥에서 380㎜ 높이를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것은 출입할 때와 앉아서 밖을 내다볼 때의 전망을 고려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책상은 높이 300~360㎜, 연상이나 경대가 그 이하인 것은 앉아서 일할 때 팔꿈치의 편안한 자세를 고려해서이다.[6] <圖1>

6)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p.77

<圖1> 가구의 크기와 인체비례도

한국 목칠공예의 양식적 특징을 '간결하고 명확한 선'으로 집약한 점은 구조주의적 측면을 두고 한 말이다.[7] 간결한 선이란 곡선이나 무수한 세선이 아니라 몇 개의 직선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명확한 면은 그 직선에 의하여 구획된 방형 혹은 장방형의 평면에 별로 장식조차 없어서 정돈된 느낌을 준다. 선과 평면에서 우러나는 구조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장인의 숙련된 안목으로 다듬어진 것이다.[8]

2. 소반(小盤)의 개념 및 특성

소반을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음식을 먹기 위한 식기를 받쳐 나르는 작은 규모의 상[9]으로 음식을 얹어 놓고 식사를 하거나 옮기기도 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밀접하게 필요로 했던 도구중의 하나로 쓰여 졌던 상을 말한다.

또한 상이란 명칭은 연상(宴床), 책상(冊床), 경상(經床)등과 같이 거의 이동하지 않거나 움직이더라도 짧은 거리를 옮기는 기구를 말하며 반이란 물건을 담아 옮기는

7) 상게서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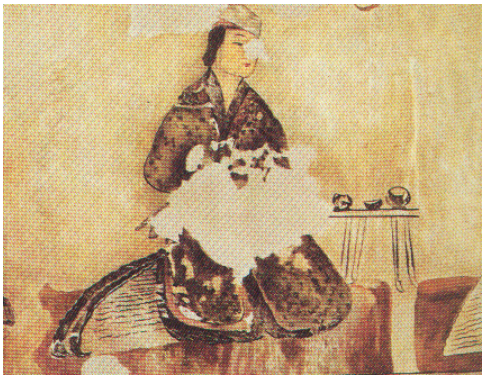
8) 상게서 p.93

9) 한국정신문화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991, p707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반은 다리가 없거나 짧은 발이 달린 것이 일반적인 구조로 소반, 예반, 쟁반 따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과 반을 구별하지 않고 상 또는 소반이라고 한다.

소반은 다른 가구와 마찬가지로 선과 면의 단정하고 쾌적한 구조미가 바탕이 되는 가구이며 운반 기능을 위하여 기물을 올려 두는 상판이 밖으로 나와 별도의 손잡이 없이 양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그 쓰임에 맞게 원형(圓形), 사각형(四角形), 다각형(多角形), 연엽형(連葉形)으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를 받치는 다리는 목재의 연결부분을 짜임으로 튼튼하게 짜 맞추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유려함을 가하기 위해 운각을 끼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소반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 <圖2> 중 각저총 주실의 북벽에 있는 벽화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벽화에는 음식을 담은 식기를 받친 사각반과 원형 삼족반이 그려져 있는데 사각반은 상판에서 곧게 뻗어 내린 4개의 긴 다리가 달려 있는 반(盤)의 형태를 볼 수 있다.<圖3> 이런 삼국시대의 반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탁(卓)의 형태에 가까운 다리가 긴 형태를 유지하여 고려시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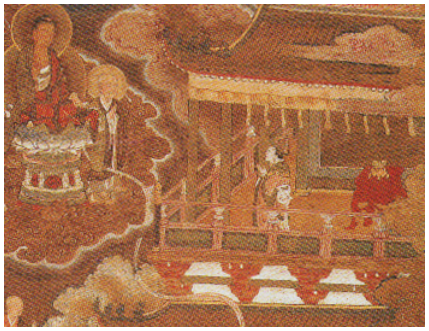
<圖2>고구려 고분벽화

<圖3>고구려고분벽화 사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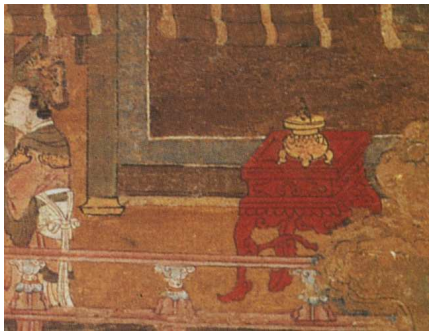
고려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고려도경(高麗圖經)을 보면 “고려는 문물

예의지방이라 하여 제사 때 음식을 담는 그릇인 조두를 상용하고 공회때에는 왕부와 국관들이 상탁(床卓)과 반을 사용한다" 고 하였는데 고려의 가구는 중국과 유사한 상탁(狀卓:다리가 긴 입식탁), 연대(演臺), 좌탑(坐榻), 괘탑(掛塔)등의 가구를 사용한다고 했다.[10]<圖4-6>

<圖4> 중국 명(明)시대 탁



<圖5> 관경변상도-고려1312년 일본 대은사 소장



<圖6>圖5 확대도

이후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영향으로 다리가 긴 형태의 소탁(小卓)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기에 들면서 입식생활을 하는 중국이나 서양의 가재도구와는 달리 좌식의 주거공간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평좌식의 생활을 하는 온돌방 구조로 정착되면서 소반의 다리가 앉아서 생활하는데 적합한 높이인 300㎜내외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사회규범과 신분질서가 엄격하여 사랑채, 안채, 행랑채로 구분되었던 생활공간에서 운반이 손쉬운 형태의 규모와 구조로 발달된 생활용품으로 소반의 상판이 500㎜내외로 한사람의 힘으로 부엌에서 마당을 지나 대청을 오르고 안방이나 사랑방으로 운반하기 좋을만한 반(盤)의 크기로 제작되어졌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유교의 영향으로 생활환경과 의식구조가 청빈함을 내세우는 검소한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전의 왕실이나 귀족중심의 가구제작에서 벗어나 부를 축적한 상인들과 일반 민가에서도 안방이나 사랑에서 조석상을 받는 생활습성으로 민간생활 중심의 가구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圖7> 이로 인해 가구제작을 지

10) 김정필, 김현정「전통 나주반의 재현과 현대화에 관한 연구」한국공예논총, 1999

정된 관청에서 지정된 가구만을 제작하던 것이 주인의 취향이나 주문에 따라 제작하게 되고 가구마다 각기 나름대로의 강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장인마다의 개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장인이 주문자의 조언을 참작하여 생산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풍, 취향과 개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11]

<圖7>19세기 풍속도

4. 소반의 분류

소반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지역(地域), 상판, 다리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리형태를 현대가구와 접목시키는 연구이므로 다리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표2>

가)상판에 따른 분류

소반의 상판 모양은 소반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짓는데 그 모양에 따라 사각반, 다각반, 연엽반, 원반 등으로 구분된다.

11) 박영규 「한국의 목공예」 범우사, p12, 1997

나) 지역에 따른 분류

소반의 제작이 대체로 소규모의 가내수공업이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형태가 형성되었고 생산지에 따라 소반의 특징<표2>이 달라서 만든 고장의 이름이 소반의 고유명사가 된 것으로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용도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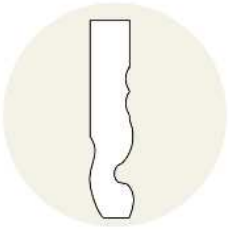
소반은 용도별로 이름이 붙여지고 풍속에 따라 별칭이 되었는데 보편적인 반상과 신선로상, 술잔상과 돌상, 제상, 공고상 등이 있다.

라)다리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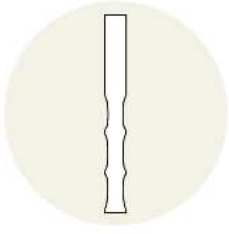
다리는 소반의 높이를 결정지으며 상판의 아래에 붙어 상판을 받쳐준다. 다리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호족형<圖8>, 구족형<圖9>, 마족형<圖10>의 동물형과 죽절<圖11>의 형태를 보이는 식물형이 있다.

<圖8>호족형

<圖9>구족형



<圖10>마족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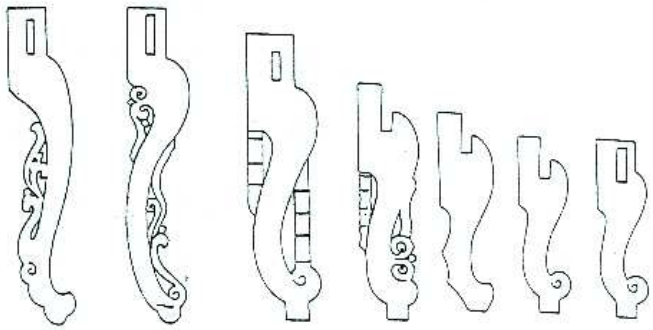
<圖11>죽절형

(1)호족형<圖12>

조선시대 소반의 가장 보편적인 다리형태로 발목이 잘록하고 종아리가 날렵하게 처리되었으며 마치 호랑이 다리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상판은 원판<圖13-14>, 연엽판<圖15>, 다각반<圖16-21>에 주로 호족을 붙여 반과 각을 조화시켰다. 상판은 대부분 통판이며 그 바로 밑에는 운각이 둘러지고 운각은 네 곳의 다리로 받치고 있다. 이런 운각의 유려한 곡선과 호족반의 구부러진 다리 외형선은 풍만한 곡선을 보여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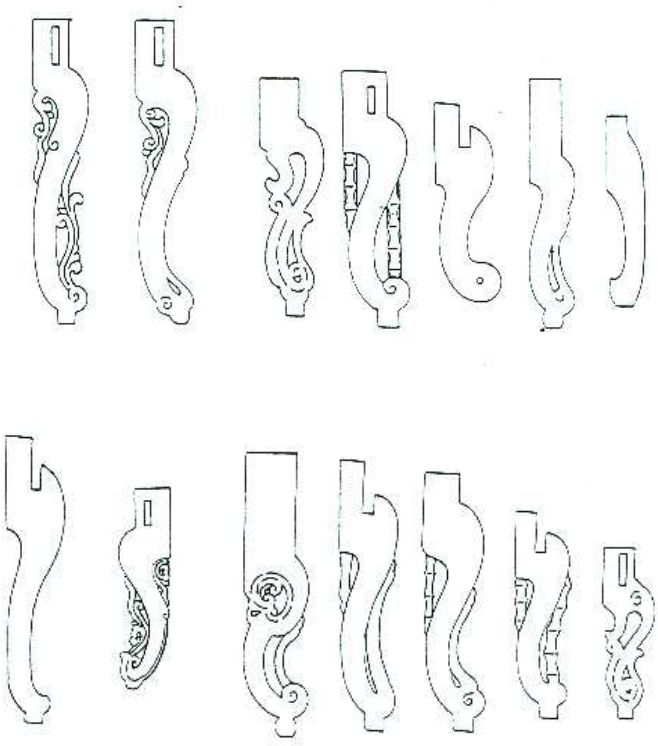
있으며 굴곡이 완만한 선은 조선시대 건축 장식과 공예품에 자주 등장하는 장식선이다. 조선 백자병이나 항아리의 선, 목조 건축의 출목 장식 선에서 볼 수 있는 선의 굴곡이 심하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직선이나 경직된 구성의 자극을 줄이고 있는 우아한 선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사상, 기호, 습성을 표출해 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12)]

호족형의 소반은 조선 전기 양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반이 중기 이후에 들어오면서 서민과 상민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초기의 힘차고 강한 힘이 있던 선의 흐름은 후기에 들어오면서 부드럽고 연약한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다. 제작방법이 용이하여 전라남도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즐겨 사용되었으며 용재는 대체로 행자목이나, 고급품은 목리가 좋은 느티나무 반도 있다.



<圖12> 호족형 다리의 종류와 크기

12) 나선화 「소반」 대원사, 1998, p79



<圖12> 호족형 다리의 종류와 크기

단위(MM),가로(W),세로(L)높이(H), 지름(⌀),

<圖13>호족원반
h170×⌀374

<圖14>주칠호족원반
h387×⌀627

<圖15>호족화형반
h221×⌀332

<圖16>호족사각반
w529×L408×h313

<圖17>호족육각반
h125×⌀217

<圖18>호족팔각반
h270×⌀515

<圖19>호족십이각반
h165×⌀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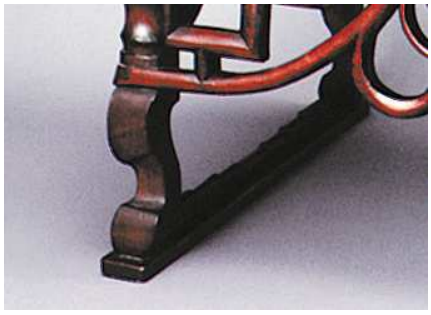
<圖20>호족십이각반
h128×⌀20

<圖21>나전흑칠포도문호족십이각반
h210×⌀307

(2)마족형

말의 다리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다리의 중앙은 잘록하나 아래위가 굵은 형태이며 다리에 사궤들림을 하고 다리 끝에는 卍자문을 조각한 것이 대부분으로 안주지방에서 많이 만들어졌기에 안주반이라고도 부른다.<圖22-23>

<圖22> 마족 통영반
w285×L502×h386



<圖23> 통영반 확대된 다리모습

(3)구족형

개의 다리와 같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하여 개다리소반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장식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가장 서민적인 양식이고 또한 상민적인 명칭이다. 굵고 긴 다리가 시각적으로 깎여 있어 12각, 원반에 어울리며 굵어서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구족반은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되어져 충주반이라고도 불리우며 우리나라의 상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소반의 형태이다. 이런 구족반은 호족반이나 마족반에

비해 장식이 없어 화려하고 율동적이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밖에서 안으로 휘어진 다리의 모양은 국민의 민족성이 느껴지고 자연스러운 둥근 선은 중부지방의 여유롭고 소박하며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재료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주로 사용했다.<圖24-25>

<圖24>나전구족원반
∅287×h395

<圖25>구족원반
∅287×h395

(4)죽절형

대나무 마디를 응용한 형태의 식물형으로써 대나무의 강직함을 나타내고 대나무 마디의 형태가 견고한 느낌을 갖게 한다.<圖26> 그리고 대나무 마디를 풍혈이나 중대, 다리에도 장식하였다. 호족과 절충하여 응용된 죽절반은 궁중 의례용 기물로 애용되기도 했다. <圖27>의 경우는 중국의 죽절형 반으로서 중국의 구갑죽(龜甲竹) 형태로 만들어진 다리이며 이것은 지역에 따른 대나무에 모양 차이에서 온 형태이다.

<圖26>나주죽절반 263×432×346

<圖27>중국죽절형반

(5)회전반

일주반의 형식이나 기둥 중심부의 회전축을 이용하여 반을 돌게 고안한 소반으로 반의 모양은 화형(花形)이나 12각이 많고 생칠을 하여 매우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다.

(6)일주반<圖29>

한 개의 기둥으로 받쳐진 소반으로 단각반<圖28>이라 부르기도 한다. 밖으로 보이기에는 하나의 다리이지만 반 밑과 발은 +자로 교차된 4개 받침대의 발이 받치고 있어 실제로 숨어있는 4개의 다리를 가진 소반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한 주안상이나 한 그릇의 물, 약, 과일 등을 정성 들여 바치는데 사용하였고 다리부분에는 연주문이나 연당초문 등을 화려하게 조각하여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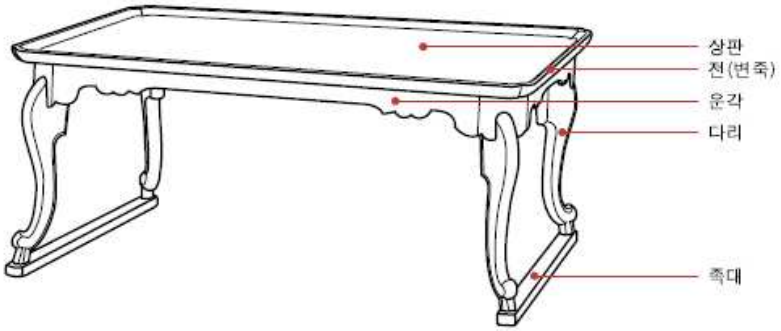
<圖28>단각반 h263 ∅370

<圖27>일주반 h220 ∅370

분류	해주식 소반	나주식 소반	통영식 소반
다리	· 화려한 투조 판각(板刻)이 특징이다. · 좌우 판각은 내려오면서 약간 벌어져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 장식된 조각으로는 뇌(雷)문, 연화(蓮花)문, 박쥐문, 만(卍)자문 등이 있다. · 판각에는 대부분 가래나무가 쓰인다.	· 굵은 원통형의 다리가 주류를 이루고 호족(虎足), 구족(拘足), 마족(馬足) 등 동물의 다리모양이 많다. · 다리의 상부는 운각을 끼워 맞추도록 턱짜임으로 되어있다. · 소나무, 오리나무, 물푸레나무가 많이 쓰인다.	· 사각반의 경우 원통형과 마족(馬足)형의 다리가 많다.

<표2> 지역별 소반 다리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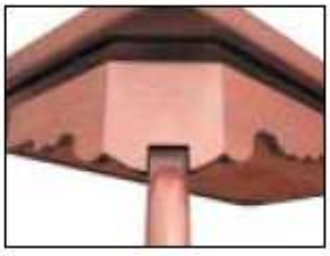
5. 소반의 일반적 구조 및 제작기법



<圖30>나주반 부분 명칭도

소반의 형태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제작방법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공정을 거친다. 전남지방무형문화재 14호 김춘식 씨에 의하면 나주반의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판, 운각, 다리를 부위별로 재단한다.<圖30>
둘째, 변죽을 깎은 후 상판의 모서리에 부레풀과 대나무못으로 고정시킨다.
셋째, 운각과 상판을 반턱 홈을 판 후 결합 시킨 후 고정시킨다.<圖31>
넷째, 운각에 다리 끼울 곳을 조각하고 다리를 끼운 후 고정시킨다. <圖32>
다섯째, 족대에 홈을 파고 장부촉끼움으로 다리를 끼워 만든다.<圖33>
여섯째, 표면에 사포질 후 옻칠을 한다.



<圖31>상판, 다리,운각의 결속

<圖32>다리와 운각의 결속

<圖33>다리와 족대의 결속

제 3 절. 현대가구의 고찰

1. 가구의 정의 및 기능

가. 가구의 정의

인류역사상 가구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가구가 최초로 제작된 것은 스코트랜드, 오크니제도(Orkney Islands)의 스크라브래(Skra Bras)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에 있던 의자와 침대가 통합된 가구를 최초의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의 발생은 인간이 일정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그 거주 공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시작된 가구란 넓은 의미로 고정적인 가옥에 붙여 만든 설비인 옷장, 벽난로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자나 책상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영어의 퍼니쳐(Furniture)는 '설비된 용구, 실내에 갖춰진 물건' 이라는 뜻으로 훨씬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가구는 의식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용품으로 인간의 미적,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생활도구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13]

나. 가구의 기능

가구는 일반적으로 집에 놓아두는 도구로만 이해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가구의 개념은 조금씩 변화하였다. 그 까닭은 가구가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사고방식과,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른 도구나 건물과 밀접하게 연결된 성질을 보이며, 신체 일부처럼 접촉되어 그것을 받아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구는 거주성에 대한 특성뿐만 아니라 제품으로서 지녀야 할 기능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

---

13) 곽대웅 외 「디자인 공예대사전」 미술공론사, 1990, P1~2

첫 번째로 가구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쓰기 편리한가의 여부의 기능이다.
두 번째로 가구는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을 높이며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는 재료로 선정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세 번째로는 재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구조이고 견고하는지의 여부이다.
네 번째로는 재료에 따라 표현하기 쉬운 모양과 제약이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만들기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져있는가이다.
다섯 번째로 일반적인 가구는 양산 공정으로 제작됨으로 고성능 저가격은 중요한 조건의 하나인데 이런 점들이 충족이 되는가와 유지가 편리하게 하는 기능이다.
여섯 번째로는 가구는 실용도구인 동시에 실내의 아름다움을 조성하는 요소인데 이런 조건에서 형태, 색채, 재료의 아름다움의 효과가 있는가 이다.
일곱 번째는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구의 중요한 기능적인 요소이다.

이런 일곱 가지의 조건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사용목적에 따라 기능도 달라지지만 각각 가져야할 기능을 살려 한 층 높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 가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테이블의 일반적 고찰

가. 테이블의 정의

인간은 주거의 기능과 공간에 따라 욕구가 변화한다. 서양의 경우는 입식생활을 하고 우리의 경우는 좌식생활이 주생활 이었다. 그에 따라 과거 한옥생활에 맞는 가구는 실내공간의 경우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낮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그러나 과학문명의 발달과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주거 생활은 입식생활로 바뀌게 되고 생활의 필요에 따라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에 알맞게 가구의 종류가 변화하였다. 그 중 물건을 올려놓거나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가구가 테이블이다.

테이블이란 서양식의 탁자나 식사, 응접, 회의 등에 쓰이는 가구의 총칭을 말하는 것으로 원형 또는 사각형의 상판과 이것을 받치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

라서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테이블은 작업에도 많이 사용되는 가구이기 때문에 선 자세,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등으로 각각의 작업 자세에 적합한 테이블의 선택이 필요하다.

테이블에 요구되는 주요 조건은 상판의 평면성이 좋을 것, 견고성,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테이블의 다리와 버팀대 등이 사용자의 발이나 다리에 걸리지 않도록 사용감이 좋아야 한다.

나. 테이블의 역사 14)

고대 이집트 제 4왕조의 자료에는 공물대(供物臺)로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은 장방형의 상판을 4개의 다리로 받치고 다리를 각각 궬대로 결합한 것으로 식탁으로도 사용하였다. 이집트의 식탁은 대개 소형으로 1인용이이며 공물대와 식탁은 고대 테이블의 기본적인 가구이다. 그리스에서도 공물대와 식탁은 같은 형식이며, 장방형의 상판을 3개의 다리로 지지한 소형 테이블이 많이 쓰였다. 로마에서는 목재로 된 것 외에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테이블을 만들었으며 식탁에는 원형이나 사각형인 대리석의 테이블이 사용되었다. 그 밖에 스핑크스나 동물의 다리로 지지한 원형 삼각 테이블, 정교한 조각을 한 청동의 삼각식(三脚式) 장식대, 직사각형의 대리석판을 청동으로 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다리로 지지한 사이드 테이블 등이 있다.

중세에는 주거형태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판과 다리를 분해할 수 있게 만든 가각식(架脚式)이라는 간소한 다이닝용 테이블이 보급되었다. 식당이 따로 없던 중세의 저택에서는 이동하기 편리한 형식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시대에도 가각식 테이블이 유행하였으나, 판과 다리가 고정되고 고곡(古曲) 모티프의 호화로운 조각이 장식된 것이었다. 수도원의 리펙터리 테이블이라고 하는 대형 테이블도 식탁으로서 보급되었으며, 테이블의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한 확대 테이블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유

14) 두산세계백과 엔사이버

행하였다. 16세기까지의 테이블은 주로 다이닝용이었으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식탁 보조용 사이드 테이블, 홀이나 갤러리의 벽을 장식하기 위한 콘솔 테이블, 거울과 테이블을 짝지은 화장테이블, 판 밑에 소형 서랍이 달린 라이팅 테이블, 18세기에는 자수 ·편물 등을 할 때 쓰는 워크 테이블, 장식용의 피어 테이블, 티 테이블이나 아침식사 테이블 등 생활목적에 알맞은 각종 테이블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조각· 상감(象嵌) ·쪽매· 도금 따위로 장식을 한 호화로운 것이었으나 19세기 이후부터는 장식용보다는 점차 기능을 중시하여 단순한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

다. 테이블의 발달과정[15)]

(1)클래식

19세기까지의 양식을 총칭해서 클래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로 대변할 수 있다.
이 가구들은 권위의 상징이고 엄격, 화려, 우아함이라는 그 시대에 따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고대<圖34>

이집트의 문화는 진보적이고 장대하며 위엄 있는 문화였다. 이집트의 문화가 생성된 이면에는 종교가 있었으며 그들의 종교관은 그들이 제작한 모든 조형물에 적용되고 있다. 이집트 가구는 좌식용 가구가 대부분으로 의자의 경우 명예나 신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리는 황소발굽이나 사자의 발톱을 조각하고 그 밑에 나무토막을 받쳐 놓음으로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였다.

초기 그리스의 예술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으며 후기에는 그리스 특유의 미적 표현으로 특색 있는 양식을 보여준다. 그리스 가구의 특징 중 하나는 장중한 왕좌 또는 고관들이 앉았던 좌석으로 이는 이집트의 영향이라고 해야 할 것

15) 정복상, 이성계 「목칠가구 조형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1999, p178~

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벽히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형태이다. 이는 그리스 자체의 기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가구의 특징은 깔끔하고 화려하다는 것이다. 탁자의 경우 원형 상판과 트라이포트라 불리는 삼각대 탁자와 두꺼운 목재로 된 장방형의 상판과 대리석의 구각(構脚)으로 형성된 탁자가 있다.

(나)중세<圖35>

로마제국의 멸망이후 4~15세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이 시기의 예술은 종교적 규범이나 제약아래에서만 성립되었다.

- 비잔틴(330~1453) : 동로마 제국시대 로마의 예술양식과 동양의 페르시아나 아랍의 예술양식의 혼합화, 건축에서 둥근천장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 로마네스크(800~1500) :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 반원의 아치, 둥근 천장을 건축에 사용하였다.
- 고딕양식(1150~1500) : 프랑스와 서구 각국에 전파된 유형, 로마의 건축양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수직선을 많이 사용하였다.

(다)르네상스<圖36>

르네상스의 본질은 중세 종교의 속박에서 인간성을 해방하는 휴머니즘의 정신에 있다. 이는 예술에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조형양식으로 복귀를 의미하는 고전양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

(라)바로크<圖37>

바로크 양식의 특징은 르네상스 시대의 정연하고 단정한 것에서 비정연하고 유동적인 형식으로 변하였다. 바로크 양식의 가구는 직선과 곡선이 조화된 구성에 의해 장중하고 호화스런 장식성을 갖고 있다.

(마)로코코<圖38>

시대적으로 클래식 스타일에 포함되지만, 고양이 다리라고 불리는 카브리올레그에 특징이 있어 구별하기 쉽다. 테이블과 의자의 앞다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곡선에 의한 구성이 많고 우아한 인상을 준다.

(2)현대

(가)신고전주의<圖39>

18~19세기 초에 걸쳐 고대로의 복귀라는 모토 아래 태어난 예술양식을 신고전주의라 한다. 신고전주의 가구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식은 고전적인 형태에서 변화되었다.

(나)미술공예운동<圖40>

현대 가구 디자인 운동은 중세의 낙천주의에서 이어진 안정감, 만족감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중상류 계층에서는 평화와 풍요의 시대였던 빅토리아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는 엄격한 사회적 관습, 불필요한 장식 또는 지나친 정교함 등으로 표현된 시기이다. 1851년 대영박람회 이후 집을 꾸미고 가구를 비치하는 등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 책들의 대부분이 더욱 간편하고 단순한 가구를 권장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스타일의 혼합이 디자인이나 예술적 도량 내지는 다양성으로 간주되었다.

(다)아르누보<圖41>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기에 유행한 전위적 디자인 운동으로 식물의 곡선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과거의 양식을 거부하는 신예술 운동으로서 유럽 전역에 퍼졌다. 그러나 재료와 구조의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15년으로 단명했다.

곡선에 의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로코코와 전혀 다른 점은 유동적, 유기적인 곡선

에 의한 비대칭형이다. 그 특징은 캐비넷에까지 미치고 있지만, 현재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리가 있는 가구와 소품, 직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라)데 스틸(De Stijl)<圖42>

1차 세계대전 직후 예술의 지적인 현대 운동이 네덜란드에서 데스틸로, 프랑스에서는 입체주의로 러시아에서는 구성주의로 표출되었다. 데스틸의 근본 세 가지 원칙은 사각형, 원색(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비대칭이었다.

(마)바우하우스<圖43>

20세기 초 예술과 산업사회를 조화시키려 하였다. 이는 수공예의 도제제도에 근본을 둔 숙련된 공예가나 예술가를 훈련시키고자 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수평과 수직의 직선적 구성을 기본으로 가구의 재료에 혁신을 꾀하였다.

(바)아르데코

아르데코 스타일은 직선구성의 기능 안에 기하학적, 원형모티브를 도입하여 단순한 면 구성의 스타일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모던 양식의 기초가 되었으며 아르누보보다 현대 디자인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다.

클래식과 컨템포러리(Contemporary)가 교차하는 1900년경에는 아르누보 스타일의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고, 가구의 형태도 가장 많이 변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공업기술과 대량생산을 위한 규격화가 이루어지면서 기계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이론에서 시작되어 예술에서 디자인으로 크게 분류되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영역의 인지가 시작되었다. 그 후 100년의 세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큰 스타일의 변화없이 아르데코의 초기 가구가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테리어 포인트로서도 코디네이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스칸디나비안<圖44>

스칸디나비아는 단지 지리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그 곳에 속한 국가들, 즉 필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공통의 뿌리를 가진 문화적 지역의 한 단위로서 사회, 경제, 정책이나 법률을 지배하는 공통된 개념을 가진 공동 단위체로서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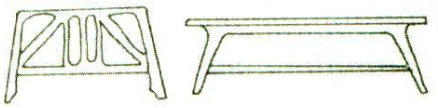
특징은 인간의 신체나 구조가 생생히 묘사되고 자연과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목으로 제작되는 가구는 전체적으로 밝은 조화를 만들어낸다.

(아)세계 2차 대전 이후<圖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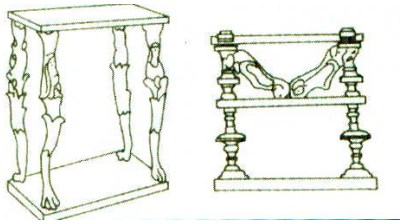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럽이 전쟁으로 인한 파괴복구에 전력을 기울일 때 미국은 지리적 이점을 통해 가구산업을 실험하고 개발하였다.

이것은 독일 내에 있던 글로피우스 등 바우하우스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여 가구의 양식 중심지가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디자인과 제작기술이 개발되었다. 형태와 재료는 새로운 재료로부터 생겨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의 경우처럼 새로운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로 새로운 제품과 형태가 창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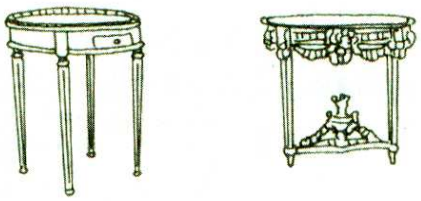


<圖34>고대 테이블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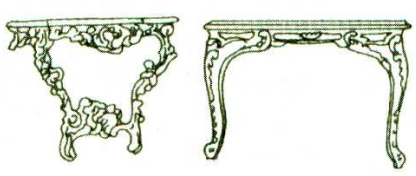


<圖35>중세 테이블 양식

<圖36>르네상스 테이블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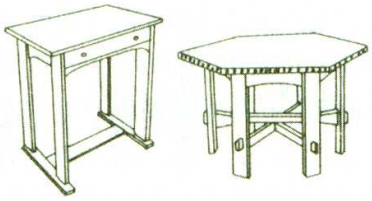


<圖37>바로크 테이블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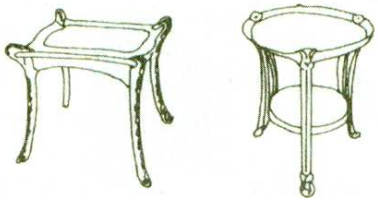


<圖38>로코코 테이블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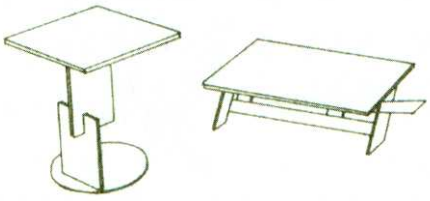
<圖39>신고전주의 테이블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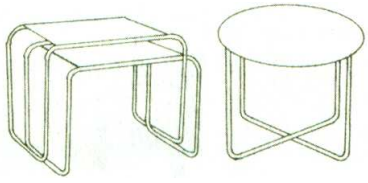
<圖40>미술공예운동 테이블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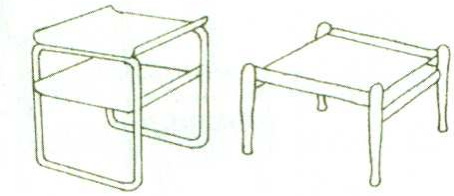
<圖41>아르누보 테이블 양식



<圖42>데스틸 테이블 양식



<圖43>바우하우스 테이블 양식



<圖44>스칸디나비아 테이블 양식

<圖45>2차세계대전 이후 테이블 양식

(3) 20세기 이후

금세기 100년 동안 많은 디자이너가 가구의 소재를 '나무'를 중심으로 구하고 있었지만 공업기술의 발달로 금속, 유리, 화학수지 등 모든 분야의 연구에 의해 큰 진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아직 이용되지 않은 천연소재, 알려지지 않은 소재들로 인해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라. 테이블의 종류

(1) 식사용 테이블 (다이닝 테이블)

직사각형, 정사각형, 타원형, 원형 등이 있으며 다리가 보통 4개 달려 있다. 구조상 판을 좌우로 접을 수 있는 것과 필요에 따라 잡아당겨 넓이를 늘릴 수 있는 확장용 판이 붙어 있는 확장 테이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재료는 가정용은 거의가 목재이며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벚나무 등이 사용된다.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 판 표면에 멜라민 화장판을 붙인 것이 많고, 고급품에는 티크, 호두나무 등을 사용한 것이 많다. 표준사이즈의 1인분은 가로 600㎜, 세로 450～500㎜를 잡으면 된다. 높이는 600～700㎜가 적당하다.

(2) 응접용 테이블 (센터 테이블)

응접실의 크기나 형식에 따라 테이블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지는데, 크기는 높이 38～650㎜, 세로 450～750㎜, 가로 500～1500㎜ 정도이다. 거의가 목재이고 판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많다. 재료는 식사용 테이블과 거의 같은데, 고급용재의 것이 인기가 있다.

(3) 티 테이블

응접용 테이블 중 비교적 소형의 것을 가리킨다. 이것의 하나로서 몇 개의 테이블을 짝지은 네스트테이블이 있다.

(4) 회의용 테이블

직사각형의 것이 일반적인데 원형 · 타원형도 있으며, 확장식과 접었다 폈다 하는 것 등도 있다. 재료로서는 목제 외에 강제(鋼製) 또는 그 혼합형이 있다.

(5) 사이드테이블

벽면에 붙여 놓거나 소파 옆에 놓아 장식과 실용을 겸한 테이블을 말한다. 소파나 안락의자의 곁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모양은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이 많다. 크기는 500× 500정도가 일반적이며 높이나 재질은 응접용 테이블과 같게 하기도 하며 현대에 들어서는 응접용 테이블은 생략하고 사이드 테이블만 갖추기도 한다.

(6) 협탁

침대 옆이나 침대사이에 두는 작은 테이블로 사이드 테이블과 모양, 크기가 비슷하다. 스탠드를 두거나 작은 서랍이 있어 간단한 수납을 겸한다.

(7) 왜건

요리나 식기 등을 얹어서 운반하거나 서비스 할 때 사용하는 바퀴가 있는 테이블로서 선반식가 상자식이 있다.

3. 소파 사이드 테이블의 일반적 고찰

가. 소파 사이드 테이블의 기능

과거 한국 주택의 공간구조는 여성전용공간인 안방과 남성중심의 서재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랑방, 그리고 방과 방 사이, 방과 마당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인 동시에 여름철 가족 공유의 생활공간 및 작업공간으로서 사용되는 대청마루가 있었다.

이처럼 대청마루의 역할이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 인구급증과 함께 아파트라는 새로운 단위형태의 주거문화가 생겨나면서 생활환경은 급속히 서구화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양의 가구가 대거 출현하였는데 그 중 발생된 가구가 테이블이며 현대 주거형태에서 필요한 것은 소파 사이드 테이블이다.

이런 소파 사이드 테이블(Side Table)이란 End Table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담뱃재떨이나 간단한 물건을 올려두는 소파 옆의 탁자를 총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사이드테이블(Side Table)은 18세기에 사용되던 식당 가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식당의 벽에 접시나 식당기구를 올려두던 보조탁자의 형태이거나 음식을 나르던 테이블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사이드 테이블은 벽면에 붙여두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리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테이블, 즉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 둘 수 있는 형태로 벽에 붙여두는 것을 총칭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이드 테이블은 안락의자 옆에 사용되는 테이블이나 거실가구인 소파 옆에 사용되는 테이블의 범위로 볼 수 있다.[16]

이러한 사이드 테이블은 소파를 구입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된다는 정도로만 생각해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소파 사이드 테이블이 기능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공간을 장식하고 벽면을 꾸미는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 독립적으로도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

주로 사이드 테이블은 서랍이 달려있어 필요한 작은 소품들을 보관하고 테이블 위에 시계나 조명기구, 안경, 찻잔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트가구로 구입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개성이나 공간에 따라서 따로 구입을 하게 된다.

나. 소파 사이드 테이블의 특성

현대는 가족 공동체의 휴식처가 안방과 대청마루에서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활동도 많아졌으며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거실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또한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선진화로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거실에서 DVD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입체그래픽게임, 보드게임 등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거실은 TV만 시청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가족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

---

16) 김한선 「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5, p133

그리고 아파트라는 단위형태의 주거문화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파를 구비하여 두고 책을 보거나 TV시청 등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게 된다.<圖46> 이런 문화를 즐기면서 소파 옆에 꼭 필요한 가구가 테이블이며 그 중에서도 좌식과 입식이 공존하는 형태의 거실에 사이드 테이블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인들은 장롱이나 책상, 침대 등은 과학적이고 계산적이며 기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스템가구를 선호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거실공간의 가구는 장식적인 요소를 더 많이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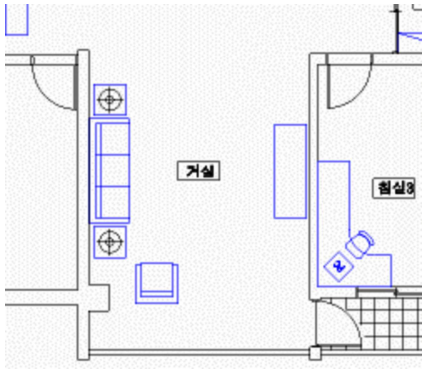
<圖46> 주거공간의 전형적인 활동영역[17]

아파트 주거형태의 거실의 공간은 대부분 비슷한 구성을 갖는다. 이를테면 현관에서 진입하면 바로 거실이 나타나며 그 거실은 장방형의 형태로 한쪽 벽면에는 미닫이의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중심으로 좌우측에는 각각 소파와 TV 등이 놓여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소파는 마주보는 구조보다는 ㄱ자의 구조이거나 일자의 구조이다<圖47~48>. 이런 구조는 마주보며 담소를 나누기 보다는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시청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때 동선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좌식생활이 입식생활과 함께 공존하고 있어 소파에 앉아있기도 하지만 바닥에 앉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 출시되고 있는 소파는 베드소파라고 하여 간이침대기능을 겸하는 소파와 기본적인 형태의 소파에 풋 스툴(Foot Stool)이 겸해진 소파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파형태변화의 흐름을 보면 꼭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눕기도 하여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안경이나 리모콘, 재떨이, 신

17) 토즈메리 킬머 외 1명 「DESIGNING INTERIOR」, 학문사, 1999, p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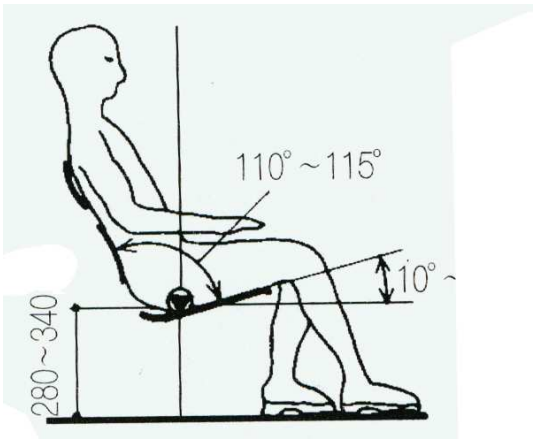
문, 간단한 다과와 음료 등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소파 사이드 테이블이다.

<圖47> 30평형 아파트도면



<圖48> 40평형 아파트도면

대개 소파에 앉았을 때 바닥에서 사람의 엉덩이까지의 높이가 280~340㎜이고 앉아서 팔꿈치까지의 높이가 480~500㎜이며 팔을 뻗어 움직임의 편리한 높이가 500~550㎜이다.<圖49>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파 사이드 테이블의 높이는 500~550㎜의 높이가 적당하며 그보다 더 높으면 팔의 동선에 방해가 되고 너무 낮으면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된다. 따라서 수납공간은 최고 높이인 550㎜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圖49>휴식용 의자(소파, 안락의자)에 앉았을 때 규격[18]

18) 최선희 「공간의 이해와 인간공학」 도서출판국제, 2001, p200

다. 소파 사이드 테이블의 분류 및 경향

테이블은 현대에 와서 상판과 네 개의 다리로 구성된 식사용 테이블부터 기능성에 집중한 책상과 디자인적인 콘솔 등에 이르기까지 기능과 디자인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인간의 삶의 형태가 시간에 따라 변화되듯이 가구의 형태도 생활의 변화에 맞는 형태로 변화되어 최근에는 일정한 사이즈로 고정된 가구 이외에도 용도나 크기가 가변적으로 변화하는 다기능 가구가 만들어 지고 있고 또한 인체공학적인 면도 강조되며 테이블이 놓여 질 공간에 따라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해져가고 있다. 소재도 과거에는 목재나 석재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신소재의 개발로 열과 습기에 강한 스틸이나 유리 등 다양하고 내구성이 강한 신소재로 대체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소파 사이드 테이블에 대해 상판, 다리, 구조, 소재에 따라 분류해 보겠다.

1) 상판에 따른 분류<圖50>

가장 일반적으로 상판이 사각형인 테이블이 많으며 원형, 다각형 등이 있다. 사각형의 상판을 가진 테이블이 많은 이유는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단순한 선으로 장식성보다는 기능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원형이나 다각형 상판의 경우 사각형의 상판보다는 장식적인 효과가 높고 이것은 기능보다는 장식을 위한 시각적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圖50> 상판에 따른 예

2) 다리에 따른 분류<圖51>

우리나라는 테이블에 있어서 세다리형, 외다리형 테이블보다 네다리형의 테이블이 월등하게 많다. 이것은 테이블이 장식적인 면보다는 실용적인 면을 더 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세다리형이나 외다리형 등의 테이블을 선호하는 유럽의 경우에는 실용성보다는 공간에 알맞은 장식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주거공간이 유럽의 경우에 비해 좁아 이런 좁은 환경에 시각적이고 장식적인 면 보다는 기능성에 더 치중하여 네다리형의 테이블이 많다고 여겨진다.

<圖51> 다리에 따른 예

3) 구조에 따른 분류<圖52>

상판과 다리의 결합구조로 이루어진 테이블로서의 단순한 기능에만 충실한 형태를 '단순형 테이블' 로, 단순형 테이블 구조에 상판의 밑 또는 다리의 중간이나 하부에 선반식 판을 추가한 형태를 '선반형 테이블' 로, 상판 하부에 수납공간을 설치하여 테이블과 더불어 사용되는 소품류 등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형태를 '수납형 테이블' 로 분류해 볼 수 있다.[19]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수납형의 테이블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거주공간이 좁아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수납형 디자인은 테이블의 구조를 수납공간이 보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테이블의 내구력을 좋게

19) 윤일-침실용 테이블 디자인 개발 연구-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논문 2000.12

하며 사용수명이 연장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형에 비해 둔탁하고 시각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圖52> 구조에 따른 예

4) 소재에 따른 분류<圖53>

수납형 테이블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목재로 되어 철재다리를 가지고 있고, 선반형 테이블의 경우에는 상판이 유리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철재다리가 많은 이유는 주물기법으로 대량생산이 용이하고 목재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圖53> 소재에 따른 예

라. 국내 거실 사이드 테이블의 현황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생활의 변화는 거실의 보급과 더불어 소파 및 거실 테이블의 사용을 증가시켰다. 한국에 대규모 가구회사에서의 대부분은 세트위주의 맞춤형 가구를 많이 생산하며 테이블은 중· 소규모 가구회사가 주로 제작을 하고 있다.

또한 거실용 사이드 테이블은 거실용과 침실용을 겸용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용도나 쓰임보다는 장식성 위주의 제품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6개 회사에서 생산하는 35종의 소파 사이드 테이블을 대상으로 크기, 형태, 재료, 가격 등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회사	구분	크기(mm)			형태			재료				가격(만원)			
		가로	세로	높이	사각	원	기타	나무	금속	석재	기타	10	20	30	이상
까사미아	마고 사이드	350	350	450	o			o				o			
	버나라운드	350	350	450		o			o		o	o			
	브리즈사이드	500	400	600	o			o			o	o			
	스펜서 스몰	450	450	550		o		o				o			
	에바 사이드	510	400	600	o			o				o			
	에스더 스몰	350	350	450		o		o					o		
	에스더 사이드	440	370	600	o			o					o		
	줄리엣 보조	590	400	700	o			o					o		
	줄리엣 사이드	500	500	500	o			o				o			
	프렌치가든 사이드	460	400	580	o			o					o		
	핑거사이드	600	450	450	o			o				o			
디자인 벤처스	노블레스	1250	700	450	o			o		o					o
	노블레스 원형	1000	1000	450		o		o		o					o
	노블레스 타원	1250	700	450		o		o		o					o
	로맨틱사이드	540	440	590	o			o	o				o		
	알렌 사이드	540	400	510	o			o					o		
	폴카 3단서랍	535	410	550	o			o						o	
아시안 데코	골드나비 사이드	620	380	600	o			o							o
	귀머리흑홍나비	480	295	490	o			o					o		
	나비	450	450	550	o			o							o
	미니흑홍나비	400	400	600	o			o							o
	원목 앤 테이블	450	380	570	o			o					o		
안나	모짜르트	470	470	470	o			o						o	

	윌리스	390	480	500	o			o						o	
	제니스	420	340	520	o			o						o	
	찰스 원형	550	550	550		o		o						o	
	PPC2	430	350	550	o			o					o		
	PQAK	350	350	550	o			o				o			
	PQAL	350	350	400	o			o				o			
코코모리방	ART 2907	360	360	580	o			o						o	
	BN 1132	320	300	320	o			o	o				o		
	KSD 121 좀비타	470	470	580		o			o		o		o		
	KSD 122 유리	500	500	600		o			o		o	o			
	RS 1421	320	300	320	o			o	o			o			
헤플화이트	com	450	320	550			o	o							o

<표3> 현재 시중에 생산되어지고 있는 테이블의 종류와 크기, 형태파악(2005년기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이블의 형태는 사각의 비율이 80%에 가까운 27개 제품이었다. 이것은 실내 테이블의 형태로 사각형이 재료의 활용도나 제작공정에서의 단순화로 제작비 절감, 거실의 형태와 가구와의 조화, 사용의 편리성 등이 고려되어 많이 선택되어지는 것 같다. 재료의 경우 목재가 대부분이며 원목을 사용하기 보다는 MDF에 무늬목과 방염필름을 사용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석재 또는 유리 등의 재질이 사용되었다. 가격은 테이블의 크기보다는 재료의 종류나 회사의 인지도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제4절. 작품 제작 및 해설

1. 디자인방향

주거공간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며 특히 사회적 영역인 거실은 주거공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거실공간의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은 내구성 및 기능성과 함께 테이블 자체가 거주 공간 속에서 독특한 기호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켜야 하고, 단순한 기능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며, 소파 사이트 테이블 자체의 디자인적 변화 또는 예술적, 장식적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적 테이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소파 사이드 테이블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건축양식과 공예품에 자주 등장하는 장식 선으로 전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반다리의 조형적인 선을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또한 소파 사이드 테이블은 책이나 안경, 신문을 올려놓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밖의 물건들을 올려두기도 한다. 그것이 뜨겁거나 차가운 것 일수도 있고 습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재료는 내열성, 내구성이 강해야 하고 습기나 물에 강한 재료로 마감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테이블의 상판을 칠로 제작한 테이블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강해 테이블의 용도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되며 칠의 자연적인 색감은 시각적으로 만족 시킬 수 있는 적합한 재료인 것이다.

이렇게 수공예 위주로 제작을 하지만 과거에 많이 사용하였던 불필요한 장식성과 재료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내츄럴리즘에 의한 칠을 이용하여 소반다리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현대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맞춰진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을 하였다.

2. 작품 설명 및 제작과정

소파 사이드 테이블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높이가 500~550㎜을 넘지 않는 기준으로 하였고 상판의 넓이는 높이에 알맞은 크기의 400~450㎜으로 규격화 하였다.

가.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 1,2

(1) 작품설명

구족의 다리형태를 기본으로 상단에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충분히 두었으며 여닫이문을 이용해 수납된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흑칠을 사용하여 가구의 중후한 분위기를 살리려 하였고 수납공간의 문과 상판에 모란문을 시문하여 시각적으로 효과를 갖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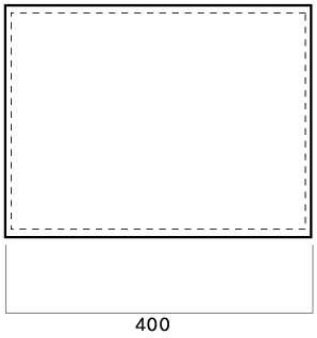
시문의 방법은 전체적으로 중칠까지 올린 뒤 캐드작업을 통해 모란문과 국화문을 시트지로 컷팅하여 시문할 곳에 붙이고 색칠을 하였다. 그 다음 칠 건조장에 건조시킨 후 1200~1500번의 사포를 이용하여 면을 다듬고 투명 포리사이트로 상칠하여 마감하였다.

(2)재료 및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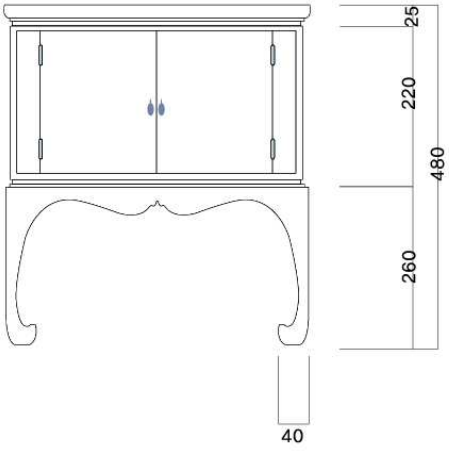
재료 - 합판, 캐슈

크기 - 400× 300×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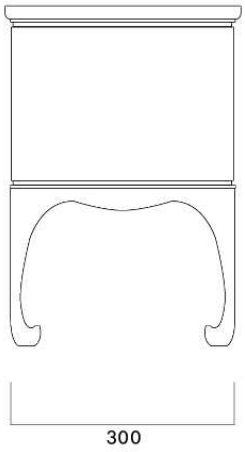
(3)도면



TOP VIEW
SCALE 1:10



FRONT VIEW
SCALE 1:10



SIDE VIEW
SCALE 1:10

(4)작품사진

-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 1

-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 2

나.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 3

(1)작품설명

기본 나주반의 원형 다리형태와 중대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테이블 하부를 디자인 하였고, 상판은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여 수납공간을 만들어 간단한 신문이나 잡지를 넣어둘 수 있게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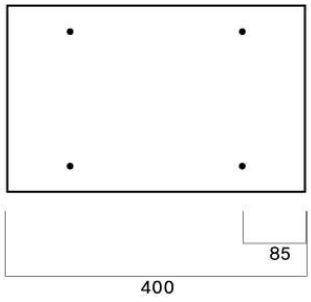
다리부분은 무게감 있는 무광 흑칠을 하였고, 상판은 모란문을 오렌지색으로 시문하여 밝고 명쾌한 느낌을 살리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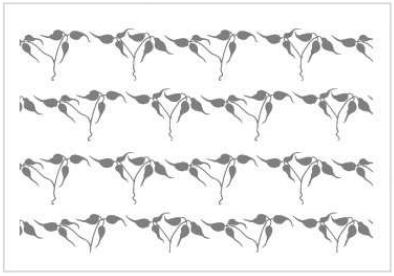
(2) 재료 및 크기

재료 - MDF, 미송, 은행나무, 캐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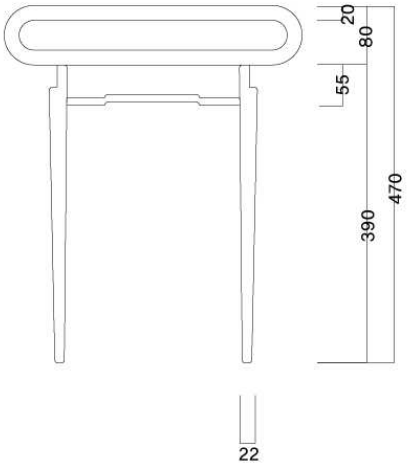
크기 - 400× 250×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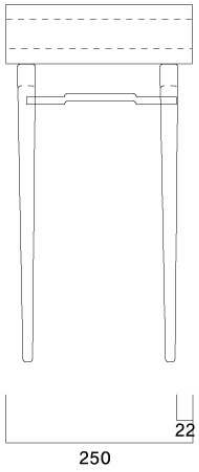
(3)도면





TOP VIEW
SCALE 1:10





FRONT VIEW
SCALE 1:10

SIDE VIEW
SCALE 1:10

(4)작품사진

다.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 4

(1)작품설명

호족반의 다리형태를 기본으로 원형 호족반의 단순화 하여 소파 사이드 테이블의 규격에 맞게 변형하였다. 상판은 빨강색을 사용하여 활기차고 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약간의 수납이 가능하게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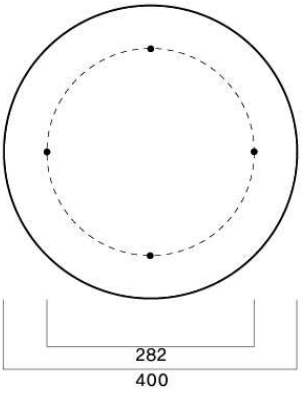
다리부분은 주합 칠을 사용하여 은행나무의 목리를 그대로 드러내 자연적인 느낌을 주었다.

(2)재료 및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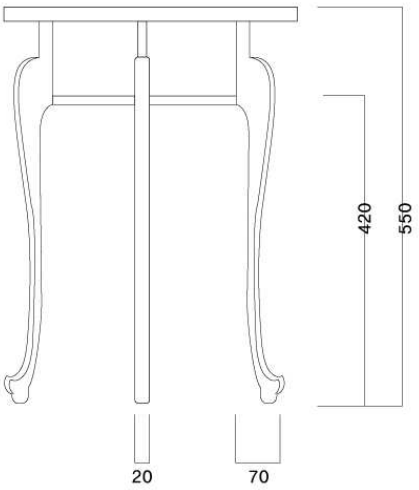
재료 - MDF, 은행나무, 캐슈

크기 - ∅400× 550㎜

(3)도면



TOP VIEW
SCALE 1:10



FRONT VIEW
SCALE 1:10

(4)작품사진

라. 소파 사이드 테이블 디자인 5

(1)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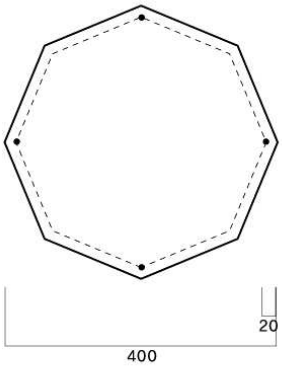
호족반의 다리형태를 응용하였고, 상판은 팔각의 형태로 기능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식적인 면에 치중하였다. 다리가 길고 날렵한 형태로 자칫하면 가벼워 보일 수 있어 무게감 있는 무광 흑칠을 하였다. 상판은 은분을 사용하여 뿌림기법으로 국화문을 시문하였다.

(2)재료 및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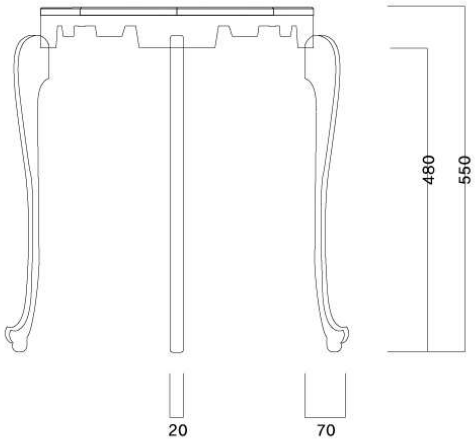
재료 - 자작나무합판, 은행나무, 캐슈, 은분

크기 - ∅400× 550㎜

(3)도면



TOP VIEW
SCALE 1:10



FRONT VIEW
SCALE 1:10

(4) 작품사진

제 3 장. 결 론

조선시대 소반은 형태나 구조에 있어서 뛰어난 미의식과 조형감각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기능적인 식사 목적 외에도 인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민간염원 등의 시대적 풍토와 생활양식을 담고 있어 그 시대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입식생활과 아파트라는 단위적 주거문화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에게 테이블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고 그 중에서 장식적이고 기능적인 거실 사이드 테이블은 심미적, 공간 활용성으로 필요한 가구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소반의 조형성을 현대 주거생활에 맞는 거실 사이드 테이블로 디자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방식에 있어 우리 고유의 멋과 감각을 살려 낼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함께 현실적인 수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판되고 있는 거실 사이드 테이블의 형태는 과거 우리문화유산인 전통양식을 응용화하기 보다는 외래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감성이 배제되고, 기능성만을 중요시 여겨 개성이 상실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반의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독특한 멋을 살리고 현대생활의 합목적성에 부합되는 거실 사이드 테이블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제작기법은 수공적인 공법을 탈피하고 다량성을 위한 기계제작기법으로 개선시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단가를 저렴화 함으로써 원활한 판로개척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재료는 플라스틱, 금속, 합판 등에서 나타난 가공재료의 인위성과 환경공해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외에서 구입이 용이한 원목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적인 질감

· 색채에서 우러나는 친밀함과 부드러움을 이용하고, 이와 함께 현재 시판되고 있는 거실 사이드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획일화된 색채와 도장을 개선시키기 위해 전통도장기법을 응용, 개발하여 독특한 미적효과를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볼 때 소반의 조형성을 이용한 거실 사이드 테이블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현대 주거생활환경에 맞는 조형미로써의 디자인 개발로 개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신우, 「현대가구디자인」 미진사, 2000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1994
박영규, 「한국의 목공예」 범우사, 1997
이연숙, 「현대가구의 역사」 경춘사, 1993
정복상, 이성계 「목칠가구 조형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1999
이연숙,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경춘사, 1991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상(上),하 (下)」 열화당, 2001
조정숙, 조정민 편역 「가구의 역사」 기문당, 1992
정복상, 김상권 「가구디자인」 미진사,
김정필, 「디자인의 재료」 예경, 1998
김삼대자, 「전통목가구」 대원사. 1997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2
권상오, 「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 조형사, 1997
나선화, 「소반」 대원사, 1998
아사카와 다쿠미,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 학고재신서, 1996
최선희, 「공간의 이해와 인간공학」 국제, 2001
박영규, 김동우, 「목칠공예」 솔, 2005

김정필, 김현정, '전통 나주반의 재현과 현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1999
정복상, '한국소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논총 1998
이태경, '실내 벽장식을 위한 벽걸이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3
윤 일, '침실용 테이블 디자인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강재석, '조선시대 家具의 現代化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4
김민정, '소반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5
김대현, '옻칠의 기법을 응용한 퓨전가구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3
김수진, '한국 현대가구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